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복어탕의 비결

복어는 오래 전부터 먹던 우리 바다의 생선이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을 지나 강으로 역류해서 올라오기도 했다. 서늘한 강의 유명한 복어가 바로 황복이다. 이 복어는 서해안에서도 많이 보인다. 강경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복어가 유명했다. 아주 비싸고 맛이 좋다.

문제는 복어 다루기다. 알다시피 복어는 맹독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어 조리 기능사 제도를 두고 시험을 치러 자격을 부여한다. 조리 기능사 시험 중에 합격률이 제일 낮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그렇다.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일식집 중에 기술이 좋은 집들은 복어를 했다. 한식집도 파는 집이 꽤 많았다. 무슨 자격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선배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조리했겠다. 그 식당에 복어가 들어오면, 동네 아이들이 가서 그 장면을 보고 했다. 입을 삐뚤거리는 복어가 무시워써 우리는 마치 뱀을 보는 것처럼 떨었다. 견드려면 배를 불룩거리며 성을 내서 일부러 장난을 더 치는 용감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호통을 들었다. 아버지도 복어를 꽤 드셨다. 복탕이라고 하여 콩나물이나 배추를 넣고 맑게 끓인 걸 좋아하셨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나니 그걸 천하의 명품 술국이라는 걸 알았다. 술 깨려고 마시다가 속이 다 풀려서 다시 술을 마시게 한다는 전설(?)의 복탕, 복국.

복국이란 말은 부산 쪽에서 주로 쓰는 것 같다. 현대

그들의 정주영씨가 출마했던 저 유명한 대통령 선거에서 '복국'이란 이름이 전국을 뒀다. 매일 그 뉴스로 시끄러웠다. 혹시 그 사건을 모르는 독자라면 젊은 세대일 것이다. '초원 복국 사건'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그 사건으로 소위 지배 세력의 수준과 비열한 태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어쨌든 복국은 죄가 없다. 그 맛 있고 시원한 탕국이 정지 입길에 오르내리는 불운이 있었다. 부산은 창원과 함께 복국이 아주 많이 팔리는 도시다.

오래된 식당, 즉 노포를 많이 취재하는 나는 이런저런 지역에 자주 간다. 흥미로운 건 노포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중국집과 복어집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집은 화교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직업에 동사하기 어렵고, 그들 내부 사회에서 독점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세월이 흐르고 노포가 된 경우라면, 복어는 어떤 이유로 노포가 많은 걸까. 우선 간절할 때냐. 복어 하나만 다루면 되니까 전문가들은 비교적 일이 빠르고 수익이 좋았다. 그래서 노포로 오래도록 사랑받게 된다. 둘째, 복어는 단골이 있게 마련이므로 가게의 역사가 쌓이기 쉬웠다. 복어도 중국집처럼 폐쇄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내막이 있다. 복어 다루는 기술을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주었으니 가족 대물림이 주로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탕이나 복어 요리는 아무나 먹지 않는다. 대체로 경제력이 있고 보수적인(정치적 의미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단골이다. 이들은 자주 가는 식당을 잘 안 바꾼다. 이 때문에 복어집은 노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즘은 독이 거의 없는 양식 복어도 많고, 복어 손질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먹고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더러워 일어난다면 무자격이나 일반 애호가(낚시꾼)가 호기심에 요리할 때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문 기사에 특하면 복어 사고 소식이 났다. 특히 복어알을 먹고 참사를 겪는 기사가 의외로 많다. 복어는 내장에 독이 많은데, 특히 알은 위험하다(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허가받은 전문가가 손질해서 요리하여 판다).

주위 온 복어알을 먹고 일가족이 위험에 빠지거나, 복어알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꽤 많았다. 식당 쓰레기통에서 주운 복어알을 훔쳐먹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건도 검색된다.

복탕, 복국은 주로 시원한 맑은 탕이 많이 팔린다. 복어는 생각보다 맛이 진하게 우리나라는 생선이 아니다. 그럼 그 시원한 맛의 비결은 무얼까. 뽕포리(뽕땀이 말린 것) 같은 재료를 푹 끓여 맛을 내는 집이 많다. 다른 생선의 뼈를 더 넣어서 맛을 강화하기도 한다. 한 노포 복어집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냥 뽕포리 제일 좋다고 한다. 설마 했는데 과연 맛이 아주 좋았다. 주인 말씀이 콩나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머리 잘라서 쓰는 두툼한 콩나물 말고 보통 거기에 쓰는 뿌리가 가는 걸 쓰되, 대가리까지 넣는 것이 비결이다. 콩나물 대가리에서 고소한 맛이 나온다는 것이다. 미나리를 듬뿍 넣은 맛있는 복국, 복탕으로 건조한 겨울을 넘겨 보는 건 또 어떤가.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치과 치료



박정희 닥터비플란트치과 원장

하고자 한다.

CT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컴퓨터 응용 설계 및 제조(CAD/CAM)다. 치과 치료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치아나 임플란트를 씌우기 위한 크라운, 여러 개의 치아를 이어서 만드는 브릿지, 치아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붙이는 인레이 등의 보철물은 과거에는 치기공사의 손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른 수준 차이가 매우 크고 불량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디자인(CAD)하고, 그 디자인을 밀링 머신에서 생산(CAM)하게 되면서 장소와 시간의 한계가 많이 극복됐다. 덕분에 담당 치과의사와 치기공사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든 정밀한 보철물 제작이 가능해졌다. 물론 지금도 기공물 제작 전후 과정에 숙련된 치기공사의 손길은 꼭 필요하지만 과거만큼 사람에 따라 보철물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우수한 보철물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기술은 CT사진과 디지털 스캐닝 기술의 결합이다. 컴퓨터 단층 촬영 자료와 잇몸을 스캔한 자료를 컴퓨터상에서 합쳐 주는 기술인데, 이것으로 뼈의 상태가 중요한 임플란트 수술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도 CT를 통해 수술 전에 미리 뼈의 상태를 짐작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예상과 실제 뼈의 상태가 너무 달라서 즉석에서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심게 되

는 경우 아무리 섬세하게 수술을 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방향이나 깊이가 계획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과 시술 후 계획이 달라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들의 결합으로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미리 제작·활용(일명 '네비게이션 임플란트')함으로써 수술 전에 미리 제작해 둔 임시 치아를 수술 후 거의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수술 통증이나 부작용도 훨씬 줄어들 뿐만 아니라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출혈의 위험이나 전신 쇠약 등의 전신 질환으로 기존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됐던 환자들도 비침습적인 수술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의 보철 방식보다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덕분에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아직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본원을 비롯한 몇 개의 치과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관련된 의료 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은 무조건 빠른 변화가 능사는 아니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부작용을 없앤 후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방법에도 많은 경험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진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진의 조심스러운 접근만큼이나 환자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기고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김옥희 광주시교육청 연구원

체의 공문서를 분석한 결과 3만 3000여 건 중 순화가 필요한 문서는 46.3%였으며 한자어, 외국어, 일본어투, 권위적 표현, 차별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말과 글은 쉬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은 온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공공기관의 정책을 전달하는 말과 글은 정확과 나이, 지역과 직업에 상관없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을 뒤서 그 기관의 말과 글을 검토하도록 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에 배치된 국어책임관은 총 2274명이다.

국어책임관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어책임관은 쉬운 용어를 찾고 규범에 맞는 문장을 쓰도록 하며,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만든다. 2022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 국어책임관이 실시한 업무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며 한다.

작년에는 교육부, 경기도청, 세종교육청이 국어책임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교육부는 국어전문관 2명을 선발해 대국민 자료를 체계적으로 감수했다. 세종교육청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하고 전 직원 한글 사랑 운동을 추진했다.

경기도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난 2021년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특검감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말과 글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이 공공기관의 공무이면서 책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공공 언어를 바꾸면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뽑아 본 공공 언어 개선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3375억 원이라고 한다.

2020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2.9%는 공공 언어를 어려워했다. 국민들은 공공 언어에서 고쳐야 할 것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50.8%), 낯설고 어려운 단어(48.2%), 외국어·외래어 남용(39.2%),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29.0%)을 꼽았다.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친근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말과 글을 책임지는 국어책임관들이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그 기관 수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들은 고위한 업무가 따로 있고 국어책임관 업무는 덤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뜻과 의욕이 있어도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 심지어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여 두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다.

새해가 밝았다. 2023년에는 우리 지역 공공기관 국어책임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社說

화정아이파크 상인 피해 보상 제대로 해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17개 층이 무너져 내린 유례없는 사고로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다. ‘빨리빨리 공사’가 낳은 전형적인 인재로 안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됐다. 공사 현장에서 숨진 유가족과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들에게 흡족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이 이뤄져 사고 후유증이 조금이나마 치유됐다.

하지만 붕괴 아파트 주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 피해 보상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피해 상가 87곳 가운데 40%인 35곳이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시공사 측과 보상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상인들은 사고 직후 최대 69일 동안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돼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고 붕괴 아파트 안정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먼지로 고통받았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영업 손실 보상보다는 3월부터 시작된 철거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시공사 측은 2024년까지 철거를 마친 후 2027년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에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시공사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도 문제다. 시공사 측은 손해사정인을 보내 사무적으로 피해 파악에 나서다가 하면 시간 끌기로 상인들의 분노를 사왔다.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지금까지도 보상 협상 과정에서 상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서구청도 상인들과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보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균형 발전 외면 안 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차전자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화단지에 제공되는 혜택과 공모 절차가 소개됐다. 신속한 입지 인허가 절차 처리부터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한도 1.4배까지 완화, 국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가 적용돼 인프라 조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문 인력·기반 시설 확보 및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이다.

한데 평가 항목에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는 끝내 빠졌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기업 유치 및 선도기업 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에 넣은 점도 지역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광주에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화단지를 접경 지역에 공동 조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광주·전남은 부지와 용수·물류망은 물론 AI·전력·자동차 등 풍부한 전방산업까지 갖추고 있다.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 생태계만 중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상에 이런 김밥도 있구나.” 오래 전 처음 이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엔 별의별 김밥들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단연코 가장 독특한 김밥은 바로 이 음식일 것이다. 밥으로만 만든 숙 있는 김밥, 오징어와 어묵 무침, 무김치(썩박지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았다)가 어우러진 김밥이구나. 바로 충무김밥 이야기다.

충무김밥의 고창 통영에 둘러앉을 때, 당연히 먹을거리 일순위는 충무김밥이었다. ‘원조’를 고집하는 스타일은 아닌 터라 길게 줄이 늘어진 가게 대신, 강구항의 여러 충무김밥집 중 한 곳에 김밥을 먹었다.

지난해 말 출간된 ‘어딘가에는 원조 충무김밥이 있다’를 읽으며 충무김밥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예전에는 오징어와 어묵 대신 필묵기가 들어갔었다는 사실, ‘빨간 다라이에 담겼던 뱃머리 김밥’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충무김밥의 화룡점정이라는 시략구(시래기) 이야기까지.

통영 사람이 쓰고 통영의 ‘남해의 봄날’이 출간한 책은 ‘어딘가에는 000이 있다’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이 시리즈는

‘남해의 봄날’을 비롯해 강원 고성 ‘은다프레스’, 충북 옥천 ‘포도밭출판사’, 대전 ‘이우출판’, 순천 ‘열매하나’ 등 다섯 개 지역 출판사가 기획했다. ‘지역’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려 문진 출판사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생활과 일을 아름답게 꾸려 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반짝이는 기록을 담아냈다.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열매하나)는 생태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해 작가가 ‘순천’과 ‘정원’을 주제로 쓴 책이다. 식물과 정원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기록한 책으로 올해 순천 한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열리는 순천과 맞춘 이야기다. 또 대전의 철공소 거리, 옥천의 이주 여성 투쟁기도 함께 나왔다. 지방 소멸이 화두로 떠오르며 관심이 높아진 게 ‘로컬’이다. 현지 토박이와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면 좋겠다. 확산도 흥여와 고흥 유자 이야기도 만나고 싶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